

# 대구 빠르면 4월 '투기과열' 해제

## '주택법 개정안' 임시국회 통과될 듯

대구시 등 광역시가 빠르면 오는 4월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은 다음달부터 분양권 전매 제한과 각종 대출규제에서 벗어나게 돼 건설경기가 대폭 활성화할 전망이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2월28일 한나라당 박승환 의원이 제출한 '주택법 개정안'을 일부 수정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개정안의 임시국회 회기내 처리가

확실시됨에 따라 정부는 아파트 분양권 전매 제한을 받는 전국의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수도권과 읍산을 제외한 지방 6대 광역시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현재 정부는 우선적으로 대구와 부산, 광주를 투기과열지구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건교위 법안심사소위원인 한나라당 김석준 의원(달서병)은 "투기과열지구 해제와 관련된 조항은 주택

법 개정안 부대조건으로 처리하도록 합의됐다"며 "따라서 정부는 공고기간을 거쳐 9월 시행될 예정인 주택법 개정안과 별개로 투기과열지구 해제 여부를 심의해 바로 결론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수정 법안은 투기과열지구에 대해 정부가 40일 이내 재심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오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처리돼 빠르면 4월부터 대구는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될 것"이라며 "최대한 빨리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돼 지방건설경기가 회복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영란기자 yrlee@yeongnam.com